

## 서비스산업발전TF 경제부총리 모두발언(6.5)

- 지금부터 서비스산업발전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작년 12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TF가 출범된 이후,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,
  - 오늘은 첫 회의로서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을 확정·발표하고자 합니다.
- 그동안 서비스 산업은 내수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%대에서 60%대로 확대되어 왔으나, 수출 비중은 30여년간 15% 내외에서 정체된 상황입니다.
  - \*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(%) : ('90) 51.4 → ('00) 57.2 → ('10) 60.1 → ('22) 63.6
  -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(%) : ('90) 46.7 → ('00) 61.1 → ('10) 68.7 → ('22) 70.7
  - 서비스산업 수출 비중(%) : ('90) 15.3 → ('00) 16.1 → ('10) 15.2 → ('22) 15.9
- 부가가치와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내수 위주에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여
- 작년 1,300억불이던 서비스 수출을 2027년에 2,000억불까지 확대하고 세계 순위도 15위에서 10위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서비스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.
- 이를 위해, 수출 지원체계를 서비스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한편, 콘텐츠, 관광, 보건의료, 디지털 서비스 등 수출 유망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### [ 서비스 수출 정책·지원 체계 혁신방안 ]

- 먼저 「서비스 수출 정책·지원체계 혁신방안」입니다.
- 그동안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원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, 무형성 등 서비스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

□ 이에,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격차를 해소하고,  
서비스 친화적 제도를 확충해나가겠습니다.

❶ 우선, 서비스 수출 기업이 판로 개척, 현지 진출, 자금 조달 등에서  
제조업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

- 코트라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 
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% 이상 확대하는 한편,
-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64조원 규모\*의 수출금융을  
공급하고, 정책금융 우대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\* 2022년 기준 서비스 수출 분야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11조원 수준

❷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 대표 기업들이 보유한  
현지 네트워크, 정보 등을 활용하여  
중소·중견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 
전문무역상사를 서비스업에서도 활성화하겠습니다.

❸ 또한, 아세안, 중동 등 경제외교 성과, ODA 등과 연계  
하여 ICT, K-컬처 등의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,  
FTA 협상\*도 문화·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에  
유리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.

\* 신규 FTA(GCC, 에콰도르, CPTPP 등), 개선 FTA(영국, 칠레 등)

❹ 아울러, 현재 서비스 산업 세부 업종별 수출입 동향을  
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부족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 
한국은행과 협업을 통해 외환거래정보를 활용하여  
콘텐츠, ICT,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 
무역통계를 개발하겠습니다.

□ 이러한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 
‘서비스 수출 원팀 코리아’ 체제를 구축하여  
민간, 공공, 현지 지원기관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□ 다음으로 분야별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## [ 콘텐츠·관광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 ]

- ☐ 먼저 콘텐츠 및 관광 분야입니다.
- ☐ K-콘텐츠 성공 신화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, K-컬처와 결합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방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고하여 K-관광의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.
- ① 우선, 내년까지 K-콘텐츠 투자펀드를 5,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조성하여 콘텐츠 수출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, 콘텐츠 스타트업에 대한 R&D, 벤처투자, 글로벌 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K-컬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.
- ② 또한, 경복궁 등 문화 유적을 활용한 콘텐츠, 관광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궁·왕릉 등에 대한 사용 및 촬영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, 2028년까지 인천공항에 전용기 전용 터미널을 구축하는 등 고급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,
- ③ 사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거래액 기준을 1회당 3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완화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도 높여나가겠습니다.

## [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 ]

- ☐ 이어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입니다.
- ☐ 의료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,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.
- ① 대형종합병원의 환자 유치 비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시 우대하고,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간병인과 전문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겠습니다.

- ②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필요한 현지 법·제도 관련 정보 제공 및 진출 신고까지 가능한 원스톱 포털을 구축하고, 우수 해외진출 기관에게 'K-헬스케어' 마크를 부여하여 현지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### [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 ]

□ 마지막으로 디지털 서비스 분야입니다.

- ① 소프트웨어, AI 서비스 등 유망 수출 품목에 대해 R&D, 사업화, 해외 진출까지 전주기에 걸쳐 특화된 지원을 강화하고,
- ② 현지 파트너 기업의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현지 사업을 지원하는 민간주도 수출거점을 UAE, 사우디, 아르헨티나, 콜롬비아 등 중동 및 중남미 주요국에 구축할 계획입니다.
- ③ 아울러, 디지털 혁신 기업에 실리콘밸리 액셀러레이터의 현지 사업화·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.

□ 이와 같은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 혁신 및 분야별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, 우리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,

-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, 「서비스산업 혁신 전략」을 연내 수립하여 발표하겠습니다.

□ 그럼 지금부터 박병원 공동팀장님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.  
(박병원 팀장 모두발언)

□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